

| | | | |
|-------------|-------------|-------------------|---------------------------|
| 민 지 실 | 음 혜 천 | BUDDHANARA | FAITH WISDOM ACTION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다나라 (불국사)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 야의 법회 및 소풍



조지아주 애틀랜타 부다나라 (불국사)

매달 둘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오후 2시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오늘의 나, 어제 생각에서 비롯되었고,
지금의 생각, 내일의 나 만든다.
내 마음 나를 창조해 내고,
깨끗지 못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마차가 말 뒤 따르듯이
어김없는 고통 따라오게 마련인 것을.

What we are today comes from our thoughts of yesterday, and our present thoughts build our life of tomorrow: our life is the creation of our mind. If a man speaks or acts with an impure mind, suffering follows him as the wheel of the cart follows the beast that draws the cart.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법문 : 무비스님

석가모니불① 새벽을 보고 도를 깨닫다

釋迦牟尼佛 賢劫第四 偈曰

因星見悟 悟罷非星 不逐於物 不是無情

석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현겁의 제 4 부처님이다. 계송으로 말씀하셨다.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으나
깨닫고 난 뒤에는 별이 아니다.
사물을 쫓아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무정물도 아니다.



종훈

해설 : 과거 여섯 부처님들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부처님은 아니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분이다. 즉 고대 인도의 종교 지도자로 불교의 창시자이다. 성은 ‘고타마’며, 이름은 ‘싯다르타’다. 석가족 출신으로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한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과 열반의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20 세기의 역사가들은 대체로 기원전 563 년 무렵에 태어나 기원전 483 년 무렵에 열반에 든 것으로 추정하지만 1956 년 11 월, 제 4 차 세계불교도대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존 시기를 기원전 624 년에서 기원전 544 년까지 생존하였던 것으로 공식 채택하였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이야기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는 사실이다. 세상에는 태자출신도 많고 고행을 한 사람들도 많다. 그러나 석가모니가 그토록 유명하고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는 이유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 때문이다. 모든 존재의 실상을 석가모니가 깨닫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성도(成道)는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기록된다. 무엇이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만한 것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을 부처님으로 승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생명을 한꺼번에 부처님으로 승격시킨 이 사실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불교의 출발도 석가모니의 깨달음에서 시작한다. 싯달태자가 깨달음을 얻음으로서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이 존재하였고, 깨달음을 설명하는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하여 삼보(三寶)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불교교단이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초파일이라 아니라 성도일이다. 초파일 행사보다도 더욱 성대하게 행사를 하면서 성도의 의미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불교의 정법을 가르치는 첩경이 될 것이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나 성도일은 누구에게도 없다. 불교가 세상에 왜곡되게 전해지는 것은 이 성도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6 년의 고행의 과정에서 여러 스승들을 찾아 수행한 끝에 비로소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 바른 사유에 들어가서 7 일일 경과한 뒤에 비로소 정각(正覺)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두고 예로부터 수많은 명안종사들이 증언부언하며 왕가왕부하였다. 여기 계송의 내용은 “새벽의 별을 본 것이 하나의 계기는 되었지만 깨달음의 안목으로 볼 때 그 별은 이미 별이 아니다. 자신이요 우주다. 그리고 진리 자체다. 그래서 별을 쫓아갈 일이 없다. 그렇다고 목석과 같은 무정물이라서 그러리라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이리라.

<선문염송>에서 깨달음에 대한 매우 빼어난 계송이 있어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실체를 이해하는데 참고가 될까하여 인용한다. 취암(翠)스님이 계송하기를,

“밝은 별을 한 번 보고 꿈에서 깨어났네. 그것은 마치 천년 묵은 복숭아씨에서 푸른 매실이 열린 격이로다. 매실이란 말이 조미료는 못되지만 일찍이 목마른 장병들의 갈증은 덜어 줬네

(一見明星夢便迴 千年桃核長青梅 雖然不是調羹味 曾與將軍止渴來)”라고 하였다.

- 무비스님 / 조계종 전 교육원장 -

대한 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정진 멈출 수 없다"

종교편향 근절 법 제정 강조...어청장·수배자 언급 안해

"국가 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할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이명박정부의 종교편향과 관련, 법 제정을 강조했다. 24 일 열린 178 회 중앙종회에서 지관스님은 인사말의 상당 부분을 종교편향 문제에 할애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일부 광신적 공직자들의 망동이 이것으로 근절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관스님은 "국가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정진을 멈출 수 없다"고 말했다. 지관스님은 또 국민의 뜻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민들이 불교계에 바라는 것은 종교평화이고 국민화합"이라며 "국민과 사부대중의 종단에 대한 성원과 바램을 살펴 국민들을 편안케 하고 화합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관스님은 불교계 요구사항 중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던 어청수 경찰청장의 퇴진 문제나 촛불시위 관련 수배 해제를 통한 국민대화합 조치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범불교대책위원회는 "대통령의 공개사과, 경찰청장 파면을 비롯한 공직자의 엄중 문책, 종교차별 금지법 제도화, 국민대화합 조치 시행 등 4 대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며, 오는 11 월 1 일 대구경북지역에서 불교도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다음은 지관스님 인사말 전문.

인 사 말 씀

오늘 제 178 회 임시 중앙종회의 개원을 맞아 종회의원 스님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전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모두들 청안하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불교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8 월 27 일 우리 불교계는 불교사상 처음으로 20 만 사부대중이 결집하여 범불교도대회를 여법히 봉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를 계기로 더욱 단결하고 호법에 대한 의식을 차원 높게 고취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불교인들은 시대 현실을 초월하여 자비로 포용하는 것을 미덕으로 살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일부 공직자들의 종교편향이 도를 넘었고, 그것은 1 천 7 백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불교를 말살하려는 의도된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더 이상의 인내가 불교를 억압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그동안 다종교문화에서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잘 지켜온 전통을 하루아침에 훼손시키겠다는 위기의식으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 · 27 범불교도대회는 이 정부 하 공직자의 종교 편향을 반대하고 종교 평화와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우리의 뜻을 평화적이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부와 국민들에게 잘 전했다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종회 의장 스님을 비롯한

종회의원 스님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국민화합과 편향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시작입니다. 비록 대회 이후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공식 석상에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무원 복무규정을 긴급 개정하여 공직자의 종교편향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하지만, 일부 광신적인 공직자들의 망동이 이것으로 근절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가 법 차원에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할 법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의 정진을 멈출 수 없고, 정진의 발걸음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外柔內剛의 의지로 국민들의 뜻도 살피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우리 불교계에 바라는 것은 종교평화이고 국민화합입니다. 불교는 그동안 어려운 고비마다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까닭에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민과 사부대중의 종단에 대한 성원과 바람을 살피 국민들을 편안케 하고 화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추호도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이제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근절하는 입법조치와 그 엄정한 집행을 감시하는 한편, 한 걸음 더 나아가 종교와 정파와 이념, 그리고 지역 대립과 갈등으로 상처 난 국민들의 마음을 화합시키고 융합시키는 공동체 회복 운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엄중하게 경책하고 막고자 하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문제도 실은 공동체 정신을 망각하고 자기 종교 이기주의 때문에 빚어진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국민화합과 공동체 정신 회복이라는 중심을 잡고 여기에 뜻을 같이하는 이웃 종교계와 시민사회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우리 사회가 더 화합하고 공동체 정신이 회복되어 더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앞장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함께 하신 중앙종회의원 스님들도 혼연한 마음으로 지혜와 원력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종회의원 스님들이 恒安하며 심도 있는 토의로 원만한 결의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2(2008)년 9 월 24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미주승가회 “종교차별 계속되면 유엔에 탄원”

9 월 10 일 성명...미주 한인사회 내 종교편향 중지도 촉구

미국 내 불자들도 종교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고 나섰다.

조계종 미주승가회(공동회장 원영·현철·도현스님)는 지난 10 일 성명을 통해 “종교편향 행위가 계속될 경우 세계불교도우의회 등과 연대해 유엔 등 국제기구에 탄원하고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주승가회는 “본국에서 이명박 정권하에 일부 공직자에 의해 일어난 종교차별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종교편향 행위는 세계역사 속에서 불행한 전쟁을 야기해 왔고 해외 동포 간에도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주 한인 동포사회의 공관이나 한인회 주최 행사 등에서 관행처럼 행하여 온 특정종교만의 기도 등 종교편향 행위를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해외언론도 범불교도대회 상세 소개

해외불교단체도 이명박 정부의 종교차별을 규탄하는 한국 불교계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스리랑카 불교단체 협의회는 지난 5 일 전자우편을 통해 범불교도대회 개최 등 한국 불교계의 행동을 지지하는 연대성명을 총무원 사회부에 보내왔다. 스리랑카 불교단체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운동이 결실을 맺고 한국불교의 부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부디 불법승 삼보의 원력으로 한국불자들의 단합이 기독교 교회의 음모로부터 한국불교를 지켜내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해외언론도 범불교도대회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트리뷴(www.asiantribune.com)은 지난 5 일 홈페이지에 종교차별에 대응하는 한국 불교계의 움직임을 메인기사로 게재, “한국불교계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특정 종교 편향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며 정부의 종교차별 사례와 지난 8 월 27 일 열린 범불교도대회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사진설명> 세계불교뉴스 포털사이트

부디스트채널이 지난 4 일 홈페이지에 범불교도대회 기사를 메인으로 게재,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4 일 세계불교뉴스 포털인

부디스트채널(www.buddhistchannel.tv)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하며 범불교도대회를 소개,

“대통령이 불교도들을 안심시켜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South Korea: President Must Reassure Buddhists

Chosun Ilbo, Sept 4, 2008

Seoul, South Korea -- The conflict between the government and Korea's largest religious group has lasted for more than two months. On July 3, Buddhist demanded that officials involved in what they see as discrimination are fired and basic remedies offered.

On Aug. 27, some 200,000 Buddhist monks and laymen held a large-scale rally denouncing the government in the heart of the capital. Yet no way has been found to resolve the conflict.

Grand National Party chairman Park Hee-tae notes flaws in the administration's responses on a daily basis, and lawmakers suggest that the administration deal with the issue more actively. But there is no sign that the government is doing anything other than mutter of "misunderstandings" and repeat that the president has already expressed regret. No wonder there are concerns that the administration does not realize how serious the situation is.

All religions exist on the foundation of saving mankind. Because religions embrace such a basic human problem, conflicts between religions preaching limitless love and unending mercy invite extreme dichotomies, dividing people involved in disputes into good and evil. That is why conflict between religions ignite annihilating hatred and lead to bloodshed.

The Korean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no state religion is recognized and that religion is separate from politics. It is because of that historical lesson that most modern states uphold separation of religion from politics.

The administration must take positive steps to alleviate the growing unease in our minds. A stitch in time saves nine, they say, and with good reason. If a mishap is repeated time after time, it takes on the appearance of intent. Take the omission of temples from a public transport information site covering the Seoul metropolitan area, prepared by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same thing was repeated in an online map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Judgement on government actions is often

passed based on subjective and emotional factors, and protestations that the government “didn’t mean it” fall on deaf ears.

Thus the suspicion that a certain religious group was favored in appointments to important government posts, the invitat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of other religious leaders in the wake of a Buddhist protest rally, the appearance of the police commissioner in a poster for an evangelical event, and a rude search of a car in which the leader of the Jogye Order was traveling: they add up to a pattern. Separately, all the incidents may have been accidents and misunderstandings, but it is hard to congratulate the government for having done the right thing.

The president has already said several times that it was all unintentional and has pledged to educate public servants in avoiding bias against any religion. But what is really needed is not some vague program at the working level but a genuine attempt at the highest level to reassure, specifically, Buddhists.

Given that the president's own evangelical religion is entangled in the current situation, it would be sensible for Lee, never mind right or wrong, to visit Buddhist leaders and listen to them. Once hearts are pacified, other issues, major and minor, can be resolved through mutual concessions. What both sides should pay particular attention to in the process is mutual respect: they must ensure that no needless provocation or insult to the other’s religion is committed.

From the Buddhist Channel

Statement Opposing Religious Discrimination

The Buddhists of Korea strongly protest the government's policie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Article 2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e prohibition of state religion, and the 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 However,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ew government, some of the high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President himself have been violating the Constitution as if intent upon turning the country into a Christian state. We strongly regret the government's physical suppression of the civil rights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s demanding the principle of democracy.

Examples of religious discrimination by the present government

1. The President sent congratulatory messages via visual media to the prayer assembly in Busan City dedicated to "the dissolution of Buddhism in this country."
2. The President declared the restoration of the Cheonggye River in the downtown Seoul as the will of "Almighty God." While Mayor of Seoul, he likewise dedicated the city to "Almighty God."
3. The biased appointment of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of Christian faith.
4. Exclusion of temples on internet maps by the government, while listing only churches.
5. Having police search the car of the Chief Executive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People of the world highly valu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diverse relig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We firmly believe that a major factor of such admirable achievement has been the Buddhist spirit of tolerance, and the great effort of the Order and devotees. However, as if to mock our tolerance and effort, the President has ignore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religious belief since his inauguration.

Our demands:

1. The formal apology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2. Enactment of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the discrimination of religion in the appointment of high government officials.
3. Strong measures to prevent religious discrimination in the government policy.

We had a pan-Buddhist demonstration on August 27 at the plaza in front of the City Hall with the assemblage of about tow hundred thousand Buddhists opposed to the biased religious policy of the government.

We ask for the endorsement of other Buddhist Orders and organizations for our proclamation against the biased religious policies of the government. We also request to notify us your concurrence about our proclamation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at the address below, and include a statement from your Order or organization supporting the harmony and solidarity of Korean

For more information about the pan-Buddhist demonstration, please click

<http://www.buddhistchannel.tv/index.php?id=45,7066,0,0,1,0>

<http://www.buddhistchannel.tv/index.php?id=45,7108,0,0,1,0>

향 사루고 부처님께 기도합시다

발원은 허공에 충만...세상 맑혀, 생명은 활기가 넘치고 기쁨 가득

아침, 저녁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삼보께 귀의하고 사루는 한줄기의 향

이 모든 우주법계를 덮어

청정한 정토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종교이든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으며, 기도는 종교의 생명이며 기도가 있는 곳에 종교가 존재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향(香)을 사릅니다. 불교의 수행법은 마음을 맑고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향은 스스로를 태워 그 향긋한 향기로움으로 주변의 잡내음을 없애고 맑고 깨끗하여 서로 한 마음으로 화합하여 더불어 평화로워지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찰에서 아침, 저녁 예불을 드릴 때, 다섯가지 의미의 향을 피워 올립니다.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 즉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마음을 맑고 고요하게 가져, 지혜롭게 수행하며 망상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지혜광명으로 중생을 모두 해탈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큰 원의 의지를 담은 정성스러운 향을 사루어 온 우주 법계 부처님께 예배드리며 맹세하는 것입니다.

향을 사루고 기도하면 그 큰 원이 향기로운 구름이 되어 온 허공에 채워지고 모든 생명에 함께 하여 세상이 맑고 깨끗하며, 생명이 활기가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하여 천당, 극락이 따로 없고, 과거 미래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마경>에 “상방에 중향(衆香) 세계가 있으니 중생이 이 향기를 듣고 함께 가만히 계율을 지켜 들면 자연히 악(惡)을 멈추고 선(善)이 생겨난다.”고 하였습니다. 향을 사루는 한 마음의 정성이 위로는 부처님과 아래로는 모든 중생에 하나 되어 중생의 악이 없어지게 되면 자연히 선행이 살아나서 세상의 모든 생명이 함께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향을 공양하면 8 가지 공덕과 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원한을 해제하고, 모든 악업이 없어지며, 공덕을 속히 얻을 수 있고, 풍요로운 결과를 성취하며, 병고가 점차 쾌차하고, 천룡과 지지가 옹호하며, 이르는 곳마다 상서로움이 있고, 속히 깨달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향은 자신을 태움으로써 그윽한 향기를 발산합니다. 여러 모양과 빛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함께 몸을 태울 때 연기는 하나로 융합되어 모든 사람의 이기심과 아집을 뛰어 넘어 화합을 보여줍니다. 향은 특별히 자신의 모습을 고집하지 않고 연기는 곧 사라져버리나, 주변의 모든 것 속에 분별없이 스며들어 그 향기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향기는 주거나 받는다는 분별심이 없이 자신을 내세우지도 않고, 모든 것에 스며들어 그 자체가 됩니다.

향은 어둡고 구석진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평등하게 보고 훈훈한 향기를 심어주어 그것 자체의 향기가 됩니다. 이처럼 향은 화합과 자비의 실천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모습이며, 자신을 태워 주위에 향기를 주는 향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향이 몸을 태워 도움을 주는 일을 본받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힘든 것만도 아닙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최소한 자신의 말은 자신이 하는 것, 그럼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편할 때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 있음을 생각하게 되는 마음, 그리고 그가 누구인가를 찾아 감사를 표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생활 속에서 향을 피우는 자신이 향이 되어 가는 길입니다.

- 불교신문에서 선묵 스님 글 발췌-

법회소식 NEWS

- 부다나라 (불국사) 사찰이 조지아주에 창립될 때까지 매달 둘째주 일요일 오후 2시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계신 불자님들 과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을 모시고 정기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 장소는 George Pierce Community Center 에 있는 Meeting Room 입니다. 주소는 55 Buford Hwy, Suwanee, GA 30024 이고, Center 전화 번호는 (770) 831-4168 입니다.
10 월 둘째주 일요일 법회 주제는 “보왕삼매론을 통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는 지혜” 입니다.
불국사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찰 부지를 매입해서 개원할 때까지 앞으로도 매달 둘째주는 조지아주 Community Center 에서 법회를 가집니다. 법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 불국사 (Buddhanara Temple)는 10 월 셋째주 일요일 (10 월 19 일) 불국사 야외 법회 및 소풍이 있습니다. 장소는 일리노이주 Alton 에 있는 과일 농장입니다. 점심은 준비해간 도시락을 먹고 농장에서는 Fuji 사과를 따니다. 농장까지 가는 길이 한국의 강원도를 연상할 만큼 절경이라 합니다.
신도님들은 불국사에 10 시 50 분까지 모여서 함께 출발합니다. 늦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 9 월 16 일은 불국사의 귀염둥이이자 막내인 Robinson 집안의 막내 아들인 Lawson 의 백일이 있습니다. 청운화 보살님은 이날 아들의 무병장수를 비는 마음으로 돌떡을 해서 부처님전에 올렸습니다. 건강하게 무럭 무럭 자라길 부처님전에 불국사 식구들 모두 축원을합니다.
- 미국에서는 매년 약 130%이상씩 미국 현지인 불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부처님을 닮고자 합니다. 불국사 선각스님이 10 월 2 일 목요일 오전 9 시 40 분부터 Ladue 에 있는 MICDS (Mary Institute and St. Louis Country Day School) 강당에서 이 학교 학생 125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회가 있습니다.
이날 법문은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 언급하고, 부처님의 말씀중에서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는 사성제와 팔정도 그리고 육바라밀”에 관해서 합니다. 약 한 시간에 걸쳐서 법문 및 질의 응답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는 MICDS 학교 청소년들은 아마도 멀지않은 미래에 불자로 다시금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 2009 년에는 불국사 달력 400 부를 찍습니다. 불자님들의 달력 보시 동참을 기다립니다. 2009 년 달력 제작비와 한국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발송료를 모두 포함하면 약 1 백만원 (천불)정도 필요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미국에서 다시 미국 각 주에 사시는 불자님들께 발송하는 발송비는 제외된 금액입니다.)

9 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36 번 신미생 차상옥, 372 번 갑진생 김병선, 373 번 을사생 연경숙, 374 번 신미생 김지선, 375 번 갑술생 김영은, 523 번 계사생 전정수, 524 번 을미생 이재임, 525 번 계해생 전현진, 526 번 병인생 전은영, 532 번 정묘생 김형진.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고자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토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 (백 팔 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9 월 한 평 불사 동참자: 신동하.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